

광주시교육청, '마을교육실험실'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의 주도적 참여 및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교육 확대·마을교육공동체 발전 토대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앞(학교 안 교과서 내용 중심 지식)에 마을의 실제(실생활)를 결합한 '마을교육실험실'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마을교육실험실'은 교사의 주도적 참여 강화 및 학교 밖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촉진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마을교육실험실'을 추진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교사를 선정했고, 참여교사에 '타라개 마을버스(광주시교육청 버스 교통지원 서비스)' 우선 이용 자격을 부여했다.

또 마을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정규수업

중 협력강사로 참여하는 '마을샘'을 위촉했다.

전대사대부중 3학년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한지희 교사는 '마을샘' 및 학생들과 함께 '고구마빵 만들기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학교 인근 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이 담긴 빵을 전달하며 '마을교육실험실'에 동참했다.

신암초 4학년 학생들은 환경운동을 하는 '마을샘'과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한 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다짐을 정크아트 작품으로 표현했다.

마을교육 수업 효과는 학생들의 이후 일상 생활로 이어져 신암초 4학년 학생들은 다 쓴 페트병은 꼭 뚜껑을 분리하고 라벨은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분리하고 있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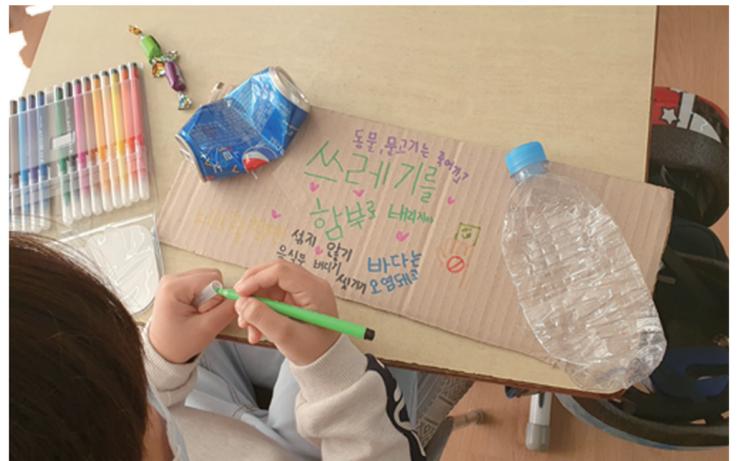
월계중과 비아초의 경우 '마을교육실험실'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마을기자단 활동을 하며 신문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마을샘'과 기사 쓰는 방법을 익힌 후 취재를 위해 학교 교문을 나서 배움터인 마을 이곳저곳을 방문했다.

조금 먼 곳은 시교육청의 '타라개 마을버스'를 타며 여행기분도 만끽하며 작성한 신문기사는 '마을샘'과 함께 꼼꼼한 되고 과정을 거친 후 진짜 신문으로 발행해 학교와 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배달했다.

'마을샘', 마을배움터, 마을활동 참여 등이 결합된 '마을교육실험실'을 통해 마을 곳곳이 교실이 됐고, 마을의 생생한 실체가 교과서가 돼 학생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배움이 와 닿을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은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수업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올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16팀 3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요성, 효과성, 만족도에



서 100% 긍정평가가 나왔다"며 "내년엔 '마을교육실험실' 운영 대상 확대는 물론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센

터 설립'까지 한 묶음으로 펼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진도공공도서관에 찾아 온 '꼼지와 왕콧구멍'

유치원 원아들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 인기

진도공공도서관(관장 조정희)이 지난 16일 관내 유치원생 80명을 대상으로 △꼼지와 왕콧구멍 인형극 공연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과 독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의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40여명 이내 2부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꼼지와 왕콧구멍은 인도네시아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으로 아기 사슴 '꼼지'가 괴물 '왕콧구멍'을 만나 위기에 빠졌을 때, 책을 읽고 배운 지혜를 활용하며 해결한다는 줄거리다.

유아들이 주인공과 대화하며 참여하고, 상황을 이끄는 참여형 연극으로 독서의 소중함을 배우며, 주어진 상황에 몰입하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유치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체험 학습과 공연 관람 등이 많이 제한되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도서관 견학도 하고 인형극을 보며 많이 웃고 즐거워했다. 웃음소리에 우리 교사들의 지친 마음도 힐링되는 느낌이다."며 도서관 관계자와 공연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기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061)544-2937으로 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교육청, '교육공동체 온라인 설문 및 학교장 협의' 가져

행정적 지원 강화·수업혁신 위한 교원연수 강화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지난 9월부터 2020년 영암교육의 주요 사업에 대한 특별 평가를 시작으로 영암교육 2021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대상 경청회, 교육공동체의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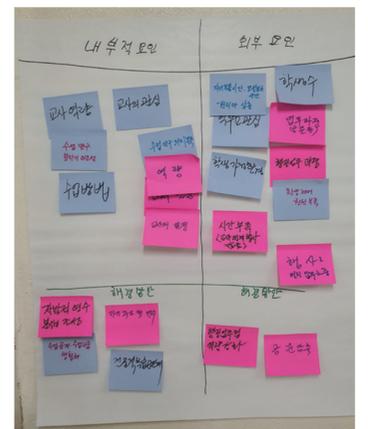
주요 의견으로는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강화,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방안 마련, 학부모, 지역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

견을 적극 반영하고, 2020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6일에는 관내 학교장들과 2021영암교육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영암지역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영암교육에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에서도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하고도 행복한 성취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 졸업식 '2021 비긴 어게인'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는 최근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5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꿈드림 졸업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재)담양군복지

재단 강성남 이사장의 축하사를 시작으로 상장 수여, 청소년 피아노 연주, 2020년 꿈드림 활동내용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꿈드림센터는 초·중·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수업 중심의 스마트교실 운영, 문화

예술 활동, 직업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올 한해 57명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이중 4명은 2021년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